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for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s at Foreign Journal Supporting Center

최 재 황(Jae-Hwang Choi)**

목 차

- | | |
|------------------------|-----------------------------------|
| 1. 서론 | 3.6 서비스대상 학술지의 분석 |
| 2. 외국학술지의 선정 | 3.7 제공불가 서비스의 사유별 분석 |
| 2.1 선정 원칙 | 4. 원문복사서비스의 개선방안 |
| 2.2 선정 과정 | 4.1 학술지 선정 시 고려할 점 |
| 3. 원문복사서비스의 분석 | 4.2 지속적인 사업기반 |
| 3.1 월별통계 분석 | 4.3 예산의 차등배분 및 의무구독 학술지
중수의 조정 |
| 3.2 이용자별 분석 | 4.4 컨소시움의 확대 |
| 3.3 이용 건수별 분석 | 4.5 홍보 강화 |
| 3.4 이용 빈도별 분석 | 5. 결론 및 제언 |
| 3.5 서비스된 학술지의 발행년도별 분석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K대 도서관에 시범 설치된 '전자·정보통신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2007년도 원문복사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원문복사서비스의 월별 통계를 기본 데이터로 하고 있다.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졌고, 동 업무의 수행을 통해 인지도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istics of document delivery services(DDS) in 2007 and to suggest improved plan at foreign journal supporting center, which is established at K University library in 2006. This study is based on the monthly collected statistics of DDS from February 20 to October 31, 2007. Analysis is performed for the various aspects of DDS services and improvement plan is provided through the acquired knowledge in the process of watching daily routine.

키워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원문복사서비스, 상호대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대구경북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
Foreign Journal Supporting Center, Document Delivery Services, Interlibrary Loan, KERIS, NDSL

* 본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위탁과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운영 및 평가(연구보고 CRC 2007-18)'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choi@knu.ac.kr)

논문접수일자 2008년 2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3월 25일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학술지는 약 50,000종으로 추산되지만, 이중에서 국내 보유 외국학술지는 약 10,000종에 불과하다. 한편, 국내 학술연구도서관들의 인쇄 해외학술지의 구독 및 수집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최근 국내 일부 대학도서관들은 기존 인쇄형 학술지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비용을 줄이고 있다. 앞으로는 전자저널의 공급 증가비율이 인쇄형 학술지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곽동철 2006).

우리나라는 현재 대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며,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국의 대학에 2-3일 이내에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 기관이 국내 미 보유 인쇄학술지를 확보하고, 상호대차를 통하여 공동 이용하는 것은 대학도서관 및 기타 도서관에 혜택을 주고, 그 파급효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술지가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에 영구히 남게 되기 때문에 투자의 효과도 영속적이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현황들을 직시하여 K대 도서관을 '전자·정보통신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시범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원센터 사업은 학술정보의 주요한 형태인 해외 인쇄학술지의 체계적인 확보 및 전국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환경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센터를 대학도서관에 설치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심원식, 박홍석 2006a). 교육인적자원부는 2010년까지 전국의

10개 대학에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신승철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K대 도서관에 시범 설치된 '전자·정보통신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2007년도 원문복사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9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진 원문복사서비스의 현황을 기본 데이터로 하고 있다.

2. 외국학술지의 선정

2.1 선정 원칙

지원센터의 외국학술지 선정 원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전자·정보통신분야에서 500종 이상의 학술지를 구독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내 미 소장 위주의 학술지를 구독하는 것이다. 500종이상의 학술지를 구독해야 하는 이유는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술지는 전 세계 학술지의 20%에 불과하다. 국가차원에서 외국학술지의 총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미 소장 위주의 학술지 구독 원칙은 학술지의 구독 업무가 진행되면서 국내 도서관 3곳 이상이 구독하지 않는 학술지로 바뀌었다. 국내 미 소장 위주의 학술지 구독은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아카이빙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2.2 선정 과정

K대 도서관은 2006년 8월 21일 전자·정보

통신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로 선정된 후 바로 외국학술지의 선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외국학술지 선정은 해당분야 학술지 목록 가운데 대상 학술지를 추출하고, 사업평가연구팀과 교내·외 기관의 자문을 받아 목록을 조정하고, 구독 대행사를 통해 해당 학술지의 입수여부를 조사하여 최종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500여 종 이상의 학술지를 제한된 분야에서 한 번에 선정 및 구독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시행착오와 현실적인 장벽으로 위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후에야 최종 목록을 작성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2006년 11월 14일 전자·정보통신분야 외국학술지 501종을 선정하게 되었다(심원식 2006).

2007년 10월 31일 현재 지원센터에서는 신규 구독 501종, K대 도서관의 전자·정보통신분야 기존구독 235종, 대구경북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이하 대경도협)¹⁾ 회원교 구독 53종을 합하여 총 789종의 외국학술지를 구독하고 있다. 지원센터 학술지는 K대 도서관 구독 학술지와 구분하여 별도 서가에 배열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신규 구독 501종 학술지는 2007년 10월 31일 현재, 2006년 11월 14일 결정된 501종과 비교하여 종 수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계약 직후 정간·폐간된 저널, 인쇄저널에서 온라인 형태로 전환된 학술지는 후속 및 관련 학술지로 대체되어 서비스 되고 있다.

3. 원문복사서비스의 분석

2006년 12월 1일 지원센터가 개소한 후, 소장 정보 구축, 원문복사서비스 시스템 가입 등 사전 준비업무를 하여 2007년 2월 20일부터 원문복사서비스를 실시하였다. K대 도서관은 지원센터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이하 NDSL) 원문복사서비스 협력기관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원센터의 홍보를 위하여 2007년 5월 협력기관으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 및 NDSL의 원문복사서비스 시스템에 이미 가입한 기관 및 개인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2007년 2월말 KERIS의 상호대차시스템에 K대 도서관과는 별도의 협력기관으로 가입하여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하면 소속을 확인한 후 기관 및 개인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KERIS나 NDSL 원문복사서비스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여도 학술지의 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즉, 지원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지원센터 홈페이지, KERIS의 WILL 시스템, NDSL 세 가지의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센터 홈페이지, KERIS의 WILL 시스템에서는 보통우편 및 팩스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고, NDSL의 경우에는 보통우편, 팩스 외에 전자전송의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개인이용자에게는 전자우편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1)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의 5개 대학, 즉,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가 대구·경북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를 결성하여 외국학술지 분담구독을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경북대를 제외한 4개 대학을 대경도협 회원교라 하였다.

3.1 월별통계 분석

지원센터에서 원문복사서비스를 시작한 2007년 2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서비스 제공 현황은 <표 1>과 같다. 2007년 3월에 원문복사 서비스 제공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K대 교수 및 대학원생들에게 e-mail로 홍보하는 내용을 발송하고, 2월말 지원센터가 KERIS에 협력기관으로 가입되면서 KERIS의 상호대차시스템 공지사항에 지원센터에 대한 안내문이 게시된 데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통계를 작성한 이래 10월은 가장 많은 서비스 건수인 130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이용자들에게 인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2 이용자별 분석

지원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 이용자별 현황은 <표 2>와 같다. 2007년 2월말부터 10월말까지 9개월에 걸쳐 기관 98개, 개인 47명이 각각 491건(68.5%), 226건(31.5%)의 원문을 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받았다. 기관이용자가 원문수혜 건수에서 개인이용자보다 2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원센터 홈페이지보다 KERIS나 NDSL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많았다는 것과 관련 있다. 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권 호 정보를 보다 더 정확하게 구축한다면, 개인에 의한 서비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월별, 서비스경로별 원문복사서비스 제공 현황

월별	센터홈페이지	KERIS	NDSL	합 계(건)
2월	0	5	0	5
3월	77	33	0	110
4월	51	23	0	74
5월	7	22	24	53
6월	10	27	58	95
7월	20	19	50	89
8월	18	16	52	86
9월	14	29	32	75
10월	8	28	94	130
계	205(28.6%)	202(28.2%)	310(43.3%)	717

<표 2> 원문복사서비스의 이용자별 수혜현황

구 분	이용		제공	
	수	비율	건수	건수 비율
기관 이용자	98	67.6%	491	68.5%
개인 이용자	47	32.4%	226	31.5%
계	145	100.0%	717	100.0%

3.2.1 기관 이용자의 분석

총 98개 기관이 지원센터를 통해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표 3>은 기관이용자의 원문복사 신청 건수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11건 이상의 원문복사를 신청한 기관은 2007년 10월말까지 총 11개 기관(전체의 11.2%)이지만, 제공건수는 223건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수의 기관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의미한다. 한 개의 기관 당 평균 약 5건의 원문이 제공되었다.

98개 기관 중 대학이 70개로 71.4%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28.6%는 연구소 등이었다. 전자·정보통신이라는 주제 분야의 특성상 지원센터가 대학뿐 아니라 연구소, 기업체 등 산업계에 미치는 효과도 큰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 지원센터 주제 분야 선정 시, 대학도서관의 수요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산·학·연 모든 분야의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주제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2.2 개인 이용자의 분석

총 47명의 개인 이용자가 지원센터에서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받았다(표 4 참조). 11건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 2명이 124건을 제공받아 편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개인 이용자 중에 1인이 109건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으며, 109건은 개인 이용자 전체 이용건수 226건의 48.2%에 해당된다. 이용자 1인당 평균 약 5건의 원문이 제공되었다.

3.3 이용 건수별 분석

<표 5>는 기관 + 개인이용자의 원문복사서비스 이용건수별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1건을 이용한 경우가 37.2%로 가장

<표 3> 기관이용자의 이용통계

제공건수	기관		제공	
	수	비율	건수	비율
1건	28	28.6%	28	5.7%
2건-5건	48	49.0%	150	30.5%
6건-10건	11	11.2%	90	18.3%
11건 이상	11	11.2%	223	45.4%
합 계	98	100.0%	491	100.0%

<표 4> 개인이용자의 이용통계

제공건수	이용자수	이용자수 비율	제공건수	제공건수 비율
1건	26	55.3%	26	11.5%
2건-5건	12	25.5%	28	12.4%
6건-10건	7	14.9%	48	21.2%
11건 이상	2	4.3%	124	54.9%
합 계	47	100.0%	226	100.0%

〈표 5〉 원문복사서비스의 제공건수별 분포(기관 + 개인이용자)

제공건수	이용자		원문복사 제공	
	수	비율	건수	비율
1건	54	37.2%	54	7.5%
2건-5건	60	41.4%	178	24.8%
6건-10건	18	12.4%	138	19.2%
11건 이상	13	9.0%	347	48.4%
합 계	145	100.0%	717	100.0%

많았고, 그 다음이 2-5건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건 및 2-5건에 대한 원문 제공건수는 각각 7.5%, 24.8%에 불과했다. 이용자별 분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소수의 이용자가 많은 양의 원문복사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해석된다.

3.4 이용 빈도별 분석

〈표 6〉은 제공 학술지의 이용 빈도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1회에서 5회까지 활용된 학술지는 140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6회 이상 신청된 학술지는 35종에(20%)에 불과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회에서 5회까지 활용된 학술지의 이용비율은 38.4%이고, 6회 이상 신청된 학술지의 이용 비율은 61.6%에 이

르고 있다. 이는 도서관에서도 적용되는 20:80 법칙, 즉 20%의 핵심 학술지가 80%의 이용을 주도한다는 법칙과 약간의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원센터가 2007년에 발간된 신간 학술지를 위주로 서비스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5 서비스된 학술지의 발행년도별 분석

〈표 7〉은 2007년 2월부터 10월까지 원문복사서비스로 제공된 학술지의 발행년도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2005-2007년의 최근 3년간 자료가 41.7%를 차지하고 있었고, 2001-2004년의 자료가 전체 자료의 20.6%, 그리고 2000년 이전의 자료도 37.7%의 이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구입을 시작한, 즉

〈표 6〉 제공 학술지의 이용 빈도별 분포

이용빈도	학술지종수	학술지 종수 비율	학술지 이용횟수	학술지 이용횟수 비율
1회 ~ 5회	140	80.0%	263	38.4%
6회 ~ 10회	27	20%	204	29.8%
11회 ~ 15회	5		64	9.3%
16회 ~ 20회	0		0	0.0%
21회 이상	3		154	22.5%
합 계	175	100.0%	685	100.0%

〈표 7〉 제공 자료의 발행년도별 분포

발행년도	건수	비율	누계
2007	116	16.2%	16.2%
2006	110	15.3%	31.5%
2005	73	10.2%	41.7%
2004	57	7.9%	49.7%
2003	37	5.2%	54.8%
2002	23	3.2%	58.0%
2001	31	4.3%	62.3%
2000	28	3.9%	66.2%
1999-1990	118	16.5%	82.7%
1989-1980	71	9.9%	92.6%
1979-1970	44	6.1%	98.7%
1969-1950	9	1.3%	100.0%
합 계	717	100.0%	100.0%

2007년에 발간된 501종의 학술지의 이용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것은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매해 자료가 누적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이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는 해석이다.

3.6 서비스대상 학술지의 분석

3.6.1 서비스대상 학술지의 JCR, SCI 비율
 지원센터에서 서비스되는 총 789종의 학술지에 대한 Journal Citation Reports(이하 JCR) 및 Science Citation Index(이하 SCI) 비율은 〈표 8〉과 같다. 신규 구독 학술지의 JCR 및 SCI 비율은 K대나 대경도협 소장 학술지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지원센터 외국학술지 구독계획에는 JCR 및 SCI를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이용 활용도가 높은 학술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3.6.2 서비스대상 학술지의 활용 빈도

지원센터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학술지 789종 중에서, 2007년 2월부터 10월까지 한 번이라도 서비스된 학술지는 총 175종(22.2%)에 불과하다. 신규 구독학술지의 경우는 더 심각하며, 총 501종 중에서 29종(5.8%)만이 원문복사서비스에 활용되었다(표 9 참조). 이는 학술지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의 이용행태와도 관련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즉, 학술이용자들은 바로 출간되는 학술지의 논문을 활용하기 보다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논문 인용문헌에서 학술논문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습관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7년 2월에서 10월까지의 원문제공 건수는 총 717건이다. 그렇지만 〈표 10〉에서 총 원문제공 건수가 685건으로 32건의 차이가 나고 있다. 그 이유는 32건이 K대에서 제공하는 235종의 학술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K대가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에서 서비스를 제공

〈표 8〉 서비스대상 학술지의 JCR, SCI 비율

서비스 구분	학술지 종수	JCR에 포함된 학술지		SCI 등재학술지	
		종수	비율	종수	비율
신규 구독	501	104	20.8%	24	4.8%
경북대	235	204	86.8%	138	58.7%
대경도협	53	33	62.3%	18	34.0%
계	789	341	43.2%	180	22.8%

〈표 9〉 서비스대상 학술지의 활용 빈도

서비스 구분	학술지 종수	활용된 학술지 종수		원문제공 건수	
		종수	비율(%)	건수	비율(%)
신규 구독	501	29	5.8	163	23.8
경북대	235	125	53.2	463	67.6
대경도협	53	21	39.6	59	8.6
계	789	175	22.2	685	100.0

〈표 10〉 서비스에 활용된 학술지의 분석

총 제공종수	JCR에 포함된 학술지 종수	SCI에 등재된 학술지 종수
175종	149종(85.1%)	102종(58.3%)

하였기 때문이다.

지원센터의 전체 구독리스트에 포함되는 K대의 235종은 계속구독을 원칙으로 한 리스트이다. 그러나 지원센터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학술지의 계속 추적을 통해, 즉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외국학술지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경북대가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결호가 있더라도 서비스되는 학술지에 추가하고 권, 호 정보를 보강하면 보다 많은 이용자의 이용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3.6.3 서비스된 학술지의 분석

총 789종의 서비스대상 학술지 중에서 서비

스된 학술지는 총 175종이다. 이들을 JCR에 포함된 학술지와 SCI 학술지로 구분하여 다시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지원센터를 통하여 제공된 175종 중에서 JCR에 포함된 학술지는 149종(85.1%)이었고, SCI 학술지는 102종(58.3%)으로 JCR, SCI 학술지의 활용도 및 요구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구독 학술지 선정에 반영되었다.

3.7 제공불가 서비스의 사유별 분석

원문복사 신청 건수는 10월 말까지 총 783건이었으나 이중 717건에 대하여만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즉, 66건의 서비스 의뢰에 대하여는

충족되지 못한 것이다. 제공률은 91.6%이고, 실패율은 8.4%이다. 제공불가 사유는 주제가 전자·정보통신 이외 또는 지원센터 학술지가 아닌 자료(19건), 서지사항 불명(18건), 중복신청(3건), 결호(20건), 미착(3건), 제본 중(2건), 서가에 없음(1건) 등이었다. 서비스 경로 면에서 살펴보면 NDSL을 통한 서비스에서 30건, KERIS에서 19건,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에서 17건이었다. 지원센터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서지정보의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표 11 참조).

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핵심 학술지가 외국학술지 선정 작업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신규 구독 501종 가운데 JCR에 포함된 학술지는 총 104종으로 20.8%에 미치고 있다. 이는 K대 도서관의 기 구독 인쇄학술지 235종 중 204종(86.8%), 대경도협 회원고 구독 학술지 53종 중 33종(62.3%)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미소장 학술지 선정 원칙에 따라 선정된 신규 구독 학술지는 앞의 <표 9> '서비스대상 학술지의 활용 빈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8%의 매우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해당 분야의 핵심 학술지를 위주로 학술지를 선정, 구독하고 국내 타 기관의 구독 중단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핵심 학술지 확보를 위하여 향후 JCR에 포함된 학술지 확보로 방향을 전환하여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성 확보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식정보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염두에 두고 지식정보 자원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SCI에 등재된 학술지는 기본적으로 입수하면서 그 종수를 늘려가고 있다. JCR에 포함된 핵심 학술지 중심으로 구독한 후 그 외 Scopus 등 다양한 DB를 참고하여 구독 종수를 점차 늘려가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원문복사서비스의 개선방안

4.1 학술지 선정 시 고려할 점

지원센터에서는 양질의 외국학술지를 구독해야 한다. 그래야만 많은 수요가 창출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의 설립 취지에 따라 지원센터는 국내 미구독 학술지(국내 도서관 3곳 이상이 구독하지 않는 학술지)를 신규 구독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KERIS에서 구축한 전국 대학 소장 정보를 토대로, 국내에서 인쇄 뿐 만 아니라 전자학술지로 구독하는 경우도 국내 보유로 간주

<표 11> 서비스 실패에 대한 사유별 현황

서비스 경로	주제분야 외, 비센터자료	서지사항 불명	중복신청	결호	미착	제본중	서가에 없음	계
KERIS	2	4	3	7	2	0	1	19
NDSL	17	2	0	8	1	2	0	30
지원센터 홈페이지	0	12	0	5	0	0	0	17
계	19	18	3	20	3	2	1	66

예산 문제로 각 도서관이 전자 학술지로만 구독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전체로 볼 때 인쇄형 학술지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해당 분야의 핵심학술지를 인쇄형태로 확보한다면 그 외 기관들은 이를 감안하여 학술지 구독여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4.2 지속적인 사업기반

2007년 5월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센터 관련 공문을 대학 및 각 기관에 발송한 바 있다. 공문을 받은 기관에서 지원센터로 문의한 내용의 대부분은 원문복사서비스 신청 방법 및 원문복사서비스 무료제공의 지속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지원센터가 지속된다면 해당 도서관은 구독학술지 선정 시, 지원센터 구독 학술지와 중복되는 것은 구독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지원센터 활성화의 기반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학술지 구독가격은 매년 인상되고 있어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의 예산 증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단 기간에 걸친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은 지원센터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에는 여러 개의 해외 DB 컨소시엄이 있으며, 해외 DB 컨소시엄에 포함되는 학술지의 인쇄본을 구독하는 경우 전자 학술지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2007년 구독 학술지 선정시에는 구독 학술지 선정 시 컨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을 학술지(Wiley 출판사

와 Springer 출판사 학술지)를 미리 파악하여 이를 선정에 참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 DB 컨소시엄에 핵심 학술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핵심 학술지를 인쇄본으로 유지하려면 상당한 추가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지원센터를 유치한 도서관에 큰 부담을 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예산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지원센터가 여러 분야에 걸쳐 선정되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술지 구독 시 해당 대학과는 별도로 하나의 주체가 되어 구독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구독 학술지의 선정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지원센터가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해외 지식정보자원의 연간 수집예산 규모가 2005년도에 약 2,629억원(곽동철 2006)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원센터의 활성화는 지원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며, 핵심 학술지의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국가 차원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3 예산의 차등배분 및 의무구독 학술지 종수의 조정

곽동철(2006)의 연구의 의하면 전체 학문분야별 연속간행물의 평균가격은 약 \$717이지만, 과학기술분야는 약 \$1,4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학문 분야별로 학술지 가격이 다르므로 각 주제 분야의 지원센터에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학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자연, 이공계열의 학술지를 동일한 예산으로 500종 이상 구독하는 것은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결국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지원센터가 여러 곳 지정이 되면, 학문분야별 학술지의 평균 가격을 조사하고, 이에 비례하여 지원되는 예산도 차등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4.4 컨소시움의 확대

지원센터의 학술지는 신규 구독 학술지 501종(63.5%), K대의 기존 구독 학술지 235종(29.8%), 그리고 대경도협²⁾의 53종(6.7%)으로 총 789종이 서비스 대상이다. 이중에서 대경도협은 지금까지 717건의 원문복사서비스 중 59건(전체의 8.2%)을 처리하고 있다. 지원센터가 대경도협과 같은 컨소시움을 더 추가한다면 이용대상 학술지는 더 많아질 것이고, 그 이용률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다. 컨소시움의 확대가 어렵다면 특정 대학과의 협약으로 그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전자·정보통신분야 학술지에 대하여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4.5 홍보 강화

잠재적인 이용 수요자에 대한 지원센터의 홍보가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여러 홍보 결과로 KERIS나 NDSL에 회원으로 가입한 기관 또는 개인이용자에게는 어느 정도 홍보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덧붙여 과학재단의 전문연구정보센터, 해당 주제 분야의 학회, 해당 분야 대학원생들에게 홍보하는 방법 등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KERIS나 NDSL같은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체 등에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및 교류협약 체결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지원센터의 활성화에 있어서 학술지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지원센터의 성패는 제공하는 학술지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양질의 학술지 구독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의한 소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점차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 상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홈페이지 상의 권 호 정보 구축을 위한 NDSL On Site²⁾ 구축이 시급하다.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전체 서비스의 28.6%에 불과하다. 적극적인 홍보에 의해 지원센터의 존재가 널리 알려진다면,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먼저 찾을 것이고, 홈페이지 상에서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것이다. NDSL에서 제공하는 학술지의 권, 호 정보를 지원센터 홈페이지 상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OA(open access) 저널의 추가로 지원센터의 학술지를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 OA 저널은 이용에 경제적,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고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저널이다. 그러나 OA

2) NDSL On Site는 협력기관 도서관시스템에서 각 기관의 이용자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NDSL에 구축된 해당기관의 저널 및 저널수록 논문정보를 검색하고 NDSL의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널 브라우징, 원문복사서비스, 맞춤정보서비스 등을 로컬도서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한다.

저널의 발굴과 선택에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지원센터가 K대에만 존재하지만 향후 지원센터에 대한 추가 선정이 이루어진다면 협력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이를 추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K대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는 센터지정이 되고 나서 학술지 선정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향후 지원센터의 지정에서는 공모제안서와 함께 서비스 대상 학술지를 함께 제출 받을 것을 제안한다. 서비스대상 학술지 가격은 얼마인지, JCR의 영향력 지수는 얼마인지, SCI(또는 SSCI) 학술지인지 등을 표시하고 이들의 전체적인 평균과 비율도 계산하여, 지원센터

지정과 동시에 서비스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원센터는 장기적인 예산지원 하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발성의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사업기반이 확보된다면, 도서관간 분담수서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이용자들도 지원센터를 확고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이용률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2007년 첫 사업에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된다. 이는 신규학술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야 본격적으로 이용이 되는 학술연구자들의 연구행태와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곽동철. 2006. 해외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예산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151-174.
- 교육부. 2000. 『교육정보화백서』.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신승철. 2006. 학술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모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상호대차/수서분과)』. 경북대학교 국제회의장. 2006. 12. 1
- 신은자. 2001. 구독취소에 따른 전자저널 콘텐츠의 소실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55-258.
- 심원식, 박홍석. 2005. 『학술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모델 개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도서관정책연구 2005-3.
- 심원식, 박홍석. 2006a.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 평가연구팀 운영』.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심원식, 박홍석. 2006b. 해외인쇄학술지의 확보와 유통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289-303.
- 이희수 등. 2002.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수립 계획 연구』. 수탁연구 CR 2002-2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순영, 권지연, 박홍석. 2006. 『상호대차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이용데이터분석 및 활용』. 사업보고 PR 2006-3.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